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조명 · 무대장치, 춤 · 분장연기

Notre-Dame de Paris (musical) - Lighting · stage setting, dance · performance makeup

차영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요약

원작이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로 변환되면서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소구하기 위해 어떤 무대화(Mise en scène) 과정을 거치는지 관심을 집중해보도록 하겠다.

I. 서론

소설 원작이 장르의 변화를 겪으면서 무대에서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어떻게 조명 · 무대장치, 춤 · 분장연기 등 이미지와 비주얼로 관객을 선명히 사유하도록 돕는지 살펴보겠다.

II. 조명 · 무대장치

노래와 음악 이외에 또 서사에 협조하는 빼놓을 수 없는 장치는, 「노트르담 드 파리」가 독창적인 형태를 구현하며 공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조명이다. 빛과 그림자 이면의 실루엣을 벽 화면에 확대해 인간내면의 이중성을 풀어낼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원색 조명으로 감정과 심리상태의 옷을 갈아입힌다. 104개의 무빙 라이트를 쏘아 올리며 표현한 빛을 활용한 다채로운 상징과 의미는, 극의 개연성과 진정성을 부여하며 에피소드 간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만든다. 최첨단 기술인 LED 화면은 아니지만 푸르스름하게 깔리는 묘한 분위기의 조명은 신비감을 더하며 15세기 중세 이야기를 밀착해오는 현존 감각으로 바꾸어 놓는다. 양측에 설치된 조명이 무대장치 벽을 관통하면서 도처에 수를 놓는 환상적인 반사 조명 효과는, 공간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빈 무대 공간을 빈틈없이 채워놓는다. 뮤지컬 넘버 2막 15장 ‘달(Lune)’ 씬에서 위고의 의지를 대변하는 그랭파르가 모두가 잠든 어둔 밤을 밝히는 하늘에 걸린 초승달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콰지모도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야밤’과 ‘반달’을 표현해주는 현장감 있는 디지털 스크린의 영상미학을, 아날로그의 감성 그대로를 전하는 뮤지컬에 융합하여



시각적인 즐거움과 환상을 부여한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신비롭게 진화해오면서 디지털이라는 가상세계 속에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존재하면서, 공연콘텐츠와 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창조적 융합은 이미지와 비주얼의 서사를 불러일으키면서 표현전달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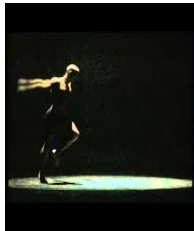
아날로그 무대장치와 결합된 디지털 영상콘텐츠로 빈 배경 공간을 채우며 한밤중임을 보여주는 무대천정에 걸려있는 달빛(초승달)은 창문을 통해 흰하게 비치면서 장소가 성전임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또 투명막 · 중앙막으로 서로 다른 장소를 지정해 주며 주연 배우의 내면과 원근감을 표현할 뿐 아니라, 가고일이 이동하면서 놓이는 자리로도 무대장소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움직이는 가고일의 이동 편의와 배우의 안전 도모용 보조 장치로 무대 바닥에 설치한 댄스 플로어를 활용한다. 노트르담 성전은, 가고일, 장미창(스테인드글라스), 천장에서 내려온 종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또 소품(바리케이드, 철제빔, 석상, 줄 등)활용으로도 대성당 벽, 집시 은신처, 감옥, 참담 등의 위치를 바꾸면서 상황, 시간의 흐름, 장소를 명시한다. 가장 좋은 무대란 장식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완성도, 무엇보다도 ‘필요성(necessity)’이란 원칙을 충족시키는 ‘미학’이란 예술철학에 기초하며 「노트르담 드 파리」의 무대의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III. 춤 · 분장연기

무대를 입체적으로 채우는 장치는 또 조명과 소품뿐 아니라, 열정과 활력 넘치는 배우의 춤과 다이내믹한 에너지로 구성된다. 무대 배경은 수백 년 전 중세 파리의 도시지만, 오늘날의 춤과 상징적이고 모던한 무대 연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위고의 고전을 현대인의 감성에 젖어들게 한다. 고전무용과 현대무용, 발레를 지향

하면서 기계체조, 액트배틱과 브레이크댄스, 힙합, 가장 최신 포스트모던 동작인 비보이(B-boy)까지 절충한(Eclectic) 활력 넘치는 '포스트모더니즘 댄스(dances postmodernes)'이다[1]. '비보이'(B-boy)는 'Breaking Boy'의 약자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댄스 장르를 대신하는 말이다. '백댄서'가 가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뒤에서 춤을 춘다면, '비보이'는 현란한 기교의 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공연이다.[2]

전천후 아방가르드적인 안무가 마르티노 필리의 댄스는 극의 분위기, 등장인물 캐릭터와 심리 묘사에 크게 공헌한다. 여배우의 유연한 연기와 모션은 비보이의 격렬한 몸짓인 브레이크 댄스에 대비된다. 1막 6장(괴로워)에서는 에스메랄다(에메랄드)와 플리르 드 리스(백합꽃)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전율하는 페뷔스의 내적 갈등은 DVD 영상콘텐츠에 담겨 "전편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영상 혁명이라고 불리는 '스텝업 3D 테크놀로지'의 진화된 댄스 퍼포먼스"를 선사한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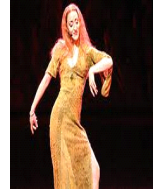


아프리카인들이 생존의 힘겨움, 공포와 고통을 음악과 춤으로 승화시킨 것이 출발점이 되어 오늘날의 힙합이 된 것처럼, 브레이크 댄스도 일종의 힙합의 하나이다. 5명의 브레이크댄서 비보이가 순간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출해낸 3D 화면은 관객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신의 경지에 오른 세계 최고의 댄서를 방불케 하는 강렬한 댄스의 퍼포먼스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주목시키는 <스텝업 3D>"[4]이다. 뮤지컬 넘버 1막 2장 보헤미안(Bohemienne : '내 괴와 내 혈관에는 안달루시아의 강이 흐른다')에서도 자유를 꿈꾸는 집시의 꿈이 숨겨져 있는데 이 노래는 현세적 삶의 자유뿐 아니라 내일의 자유를 꿈꾸는 민중의 목소리와 함께 위고의 영혼의 이상 즉, 종교적 구원을 갈망하는 신비주의 색채를 드러낸다. 이같은 맥락에서 공중에 떠 오르며 춤추는 댄서의 몸으로 이미지화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스메랄다의 영혼과 정령들의 세계가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댄서의 발레, 브레이크댄스, 현대무용 그리고 독무에서 군무까지, 주인공과 이방인의 감정과 내면, 심리변화를 대사가 아닌 표정과 몸의 언어로 이미지화하는 연출은 연기의 최고조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매력은 연극적 요소와 함께 아날로그적 예술인 춤과 무용으로 서사의 패러다임을 대치하고 있다. 즉, 무형체인 소설의 언어를 장엄한 춤과 무용, 연기(몸짓, 손짓, 표정, 어조와 억양, 등)의 연금술로 표현하면서, 원전에서는 체화할 수 없고 무대 위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와 비주얼로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여 관객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대와 고전발레, 길거리의 춤, 브레이크 댄스와 곡예의 「퓨전 댄스」로 대중(people)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물론, 시대를 초월하고 유행을 뛰어넘는 패션이나 분장도 종합예술의 완성도를 높인다. 각 캐릭터의 고유색인 자

유(흰색), 평등(푸른색), 박애(붉은색)를 상징하는 심플한 의상은 전통미를 살리면서 현대의 감각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에스메랄다의 옷소매를 보아도 길고 짧은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콰지모도의 바지도 짝짝이면서 모던한 패션 감각에 그대로 어필하도록 한다. 프롤로의 소매 술기 하단도



큰 배래주름 장식으로 옛날 부주교(Archdeacon)의 늘어진 통소매를 상징하며 현세와 중세를 절충하는 중 복합적 개념의 패션이다. '우수한 봉제 작업'을 뜻하는 오프 쿠튀르(Haute Couture)는, 파리패션계의 의상 디자이너 프레드 사탈(Fred Sathal)의 맞춤형으로 숙련공과 장인들이 정성껏 한뼘씩 수작업한 아름다운 색다른 의상이다.



전통 멋과 현대 감각의 창의적 의상뿐 아니라 분장술 역시 무대 디자인처럼 모던한 감각을 살리며 공연예술의 효율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헤어나 마스크 상의 분장효과는 고도의 화장 기술로 표정연기를 부각하게 하는 제작진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의상을 비롯해서 헤어나 무대분장 스테이지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세밀함과 독창성은 관객의 취향, 유행, 시대적 트렌드를 파악할 줄 아는 통찰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등장 배우의 섬세한 심리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얼굴 표정이나 눈빛, 몸짓, 입모양, 등, 외양의 비언어적 요소를 생생하게 부각하는 무대 위의 분장사들은, "무대 위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변신을 가능케 하는 분장·메이크업 아티스트다. 극 출연자의 특성을 강조해주거나 일반 분장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3차원적 효과를 내기 위한 분장"[5]은,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메이크업 분야이다. 이런 관점에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공연은 의상 제작기술, 분장술, 등 무대 뒤의 소리 없는 주인공의 사소하고도 다양한 숨은 작업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예술적 장치이자 중요한 이야기 무대로, 노틀담 사원의 극적분위기를 최대한 살린 문학적·역사적 공감의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강점을 살펴본다.

■ 참고 문헌 ■

- [1] 송중진, "무용의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 송중진의 무용 평론, 문화예술계 소식, 2012,04,12.
- [2] 전승훈, "비보이 댄스 페스티벌", 동아일보, 2003. 01.20.
- [3-4] <http://blog.daum.net/7237474/8737569>스텝업3D관하여.
- [5] http://blog.daum.net/sac_art/8945224